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56559

2012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17世紀 尹宣擧의 學問과 政治 位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鄭 又 誠

17世紀 尹宣擧의 學問과 政治 位相

Yoon seon geo's studies and political status
in the 17th century

201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鄭 又 誠

17世紀 尹宣擧의 學問과 政治 位相

지도교수 이 종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鄭 又 誠

정우성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경숙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진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종범 (인)

201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v

Ⅰ. 序論 ····· 1

Ⅱ. 尹宣擧의 生涯와 工夫 ····· 5

1) 生涯와 師友 ····· 5

2) 工夫와 思想 ····· 8

Ⅲ. 湖西山林의 分岐와 尹宣擧 ····· 12

Ⅳ. 結論 ····· 34

※ 參考文獻 ····· 37

ABSTRACT

Yoon seon geo's studies and political status in the 17th century

Jung woo sung
Advisor : Prof. Lee jong bum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Joseon Dynasty Age in the seventeenth century was in a great turmoil, due to series of the unfortunate cases that China invaded the Korean Peninsula in 1627 and 1636. To settle it, the Joseon royal court reformed the ill-equipped status and taxation systems, from the micro-perspective, and this decided to conquer the north, from the macro-perspective.

During the period, the group called 'Sanrim' came into being. Among the typical 'Sanrim' group were Si-yeol Song, Jun-gil Song, Gye Yu, Si Kwon, and Sun-geo Yun. The main work they did was to engage in their studies and exercised their power all around the parts of Hoseo regions. It is Sun-geo Yun, out of the five 'Sanrim' group, that is well-known as the prominent scholar, a son of Hwang Yun called Palsong as the penname, and a mother side's grandson of Hon Sung called Woogye as the penname. As one member of 'Sanrim' group, Sun-geo Yun didn't try to take the state examination and enter the

politics, after Korea was invaded by Mongol and relocated its administrative capital to ‘Gangdo’ region. All that he did was to stay in his hometown and train young students.

‘Sanrim’ group that was based on Hoseo regions was in disputes over how they will accept their opposition political party, Namin political party. Such disputes were originated from the argument surrounding the position of Hyu Yun, between Si-yeol Song and Sun-geo Yun. Unlike Si-yeol Song, who was the hard-core supporter of ‘the doctrine of Chu-Tzu’ derived from Confucianism, Sun-geo Yun showed the progressive and open-minded tendency for every academic field and defended Hyu Yun. In other words, he took the moderate stance toward Hyu Yun. Such attitude that Sun-geo Yun showed became the main culprit to trigger controversies between Song and Yun.

These disputes over it between Sun-geo Yun and Si-yeol Song lasted and went even so far as to become handed down to their sons’ generation, which was in more fierce controversies. Jeung Yun accepted every academic field, in addition to ‘the doctrine of Chu-Tzu’, who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doctrine advocated by Sun-geo Yun, on the basis of ‘Practical Confucianism’ by Hon Sung. Thus, he was in the ceaseless contacts with Jei-du Jung and Deuk-jung Yang who established ‘Yangming’ school of learning. Also, he maintained the close relationship with Se-Chae Park, the core political politician of Soron political party. While he was maintaining such relationship, Yun was disappointed in pro-supporters of Si-yeol Song, well-known as the politician leading Noron political party, who engaged in politics, joining hands with political wing forces in connection with maternal relatives.

Ultimately, he completely turned his back from the political party, Noron, and criticized the party, standing in the position of Soron political party.

According to the existing research, these disputes between the two political parties of Noron and Soron resulted from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Jeung Yun and Si-yeol Song. But, it was obvious that their sons' generation accepted practical study applied to the given reality,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doctrine of Chu-Tzu'-oriented political ideas were completely dominated. Given the fact, it cannot be disregarded that Seoin group was divided into Noron and Soron, amid such disputes and controversies.

Ⅰ. 序論

17세기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을 정리하고 무너진 질서를 재정립하는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 중 정치적 변화를 살펴보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의 정계구도는 재편되었다. 왜란중 주전론을 주장했던 북인은 광해군의 즉위 후 大北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성리학의 명분론에서 벗어난 廢母殺第와 中立外交는 서인과 남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1] 결국 1623년 西人과 綾陽君이 손을 잡은 仁祖反正이 발생해 광해군과 대북은 실각했다. 인조반정으로 인해 서인이 주도하고 南人과 小北이 협력하는 정권이 탄생했다.

이 시기에 정치권의 변수로써 등장한 세력이 바로 山林이다. 산림은 山谷林下에 은거해 있는 學德을 겸비한 學者로 儒林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산림이란 용어는 山林之士, 山林宿德之士, 山林讀書之士 등의 略稱이다.[2] 이들은 인조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산림의 초기 인물로는 광해군대의 鄭仁弘과 인조대의 金長生, 張顯光, 朴知誠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정인홍은 국왕이나 집권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徵召되던 존재가 아니었다. 위험에 빠진 광해군을 보호하는 등 스스로 개척해온 정치적 기반 위에서 권력을 놓고 국왕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앙 정계에 온전히 몸담기보다는 지방에 거주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중앙 정계에 막강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정치활동의 한 형태를 창안했다.[3]

과거에는 산림의 등장배경으로 科擧의 弊端을 주요 원인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

---

1) 고영진, 「송시열의 사회개혁사상」, 『17세기 한국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6, 114쪽.
2) 우인수, 「17세기 山林의 進出과 機能」, 『역사교육논집』 5輯, 1983, 143쪽.
3) 오수창, 「17세기 조선의 정치세력과 山林」, 『17세기 한국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6, 49쪽.

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우선 명분을 얻기 위해 산림을 등용한 것이다. 광해군의 '폐모살제'를 명분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세력과 인조는 그들의 명분을 명확하게 하고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崇用山林'을 강조하며 초야에 은거한 儒賢들을 징소했다. 산림을 등용한 다른 이유는 인조반정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졌고 지배력을 확인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광범위한 지지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4] 이렇듯 이들의 등장은 과거의 폐단보다는 士禍나 朋黨의 정치적 갈등이나 兩難과 같은 국가존립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정치적인 측면이 본질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5]

뿐만 아니라 17세기 전반 사족들은 정치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국왕과 어울려 전체 지배 체제를 구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쟁점이나 인사에서 국왕의 독단을 막는 일은 어려웠다. 대표적인 예로 인조 23년 윤6월에 있었던 왕위 계승자 선정문제가 있다. 인조는 소현세자가 죽은 후 봉림대군을 세자로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이 큰 일을 당하여 (나의 뜻을)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지 않을 것이면 따르지 말되 직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했다. 국왕의 단호한 태도에 신하들은 찬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쇄신을 위하여 산림을 추대하기에 이른 것이다. 산림은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응시자나 급제자에 비해 국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자율성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6]

이 때 등용된 산림들은 지역적으로는 충청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학문적으로는 沙溪 金長生의 문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지역적인 특색을 따서 湖西山林이라고 불린다. 김장생의 학문은 아들인 愼獨齋 金集에게 전해졌고 훗날 湖西5賢이라 불리는 尤庵 宋時烈, 同春堂 宋浚吉, 市南 兪棨, 炭翁 權諰, 魯西 尹宣擧에게 전해졌다. 그런데 이들 호서5현은 성리학을 이해하는 태도가 달랐고 훗날 남

4) 우인수, 위의 글, 148쪽.
5) 김세봉, 「朝鮮後期 忠淸山林의 動向-17世紀 山人勢力을 중심으로-」, 『湖西文化硏究』 第13輯, 1994, 3쪽.
6) 오수창, 위의 글, 46~48쪽.

인을 포용하는 태도에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그 중 윤선거는 본래 세록지가의 자손으로 일찍이 家學을 익혀 太學에 나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언론이 강개하다'고 평가받던 그의 삶이 바뀐 것은 1636년에 丙子胡亂이 일어나 소위 말하는 '江都의 일'을 겪은 후이다. 당시 지식인층은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스런 國難 이후에 출사와 은둔의 길이 모두 의리에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7] 윤선거 역시 이 일을 계기로 평생 출세하지 않고 草野에 隱居하며 자성의 삶을 살았다.

윤선거는 실천성리학의 시초인 牛溪 成渾의 외손으로 實을 중요시하는 務實을 강조했다. 당시 지식인층이 허명을 쫓아 진실한 것을 외면하는 세태를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다. 윤선거는 實心을 확립하기 위해 實德을 쌓고 實功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선거는 禮學에도 뛰어났다. 예학으로 이름 높은 김장생과 김집의 학문을 수학한 영향 때문이다. 윤선거는 예를 행할 때 古禮와『家禮』, 후대의 예설을 절충하여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儀禮 실천과정의 합리성을 추구한 것이다.

당시의 다른 학자들이 理氣心性論에 몰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선거의 문집에서는 성리학에 관련된 글을 찾기 어렵다. 윤선거의 개방적인 성향은 당파와 학파를 가리지 않고 교분을 쌓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다. 당시 호서산림의 대표적인 인물인 송시열과 송준길, 이유태 등이 서인의 주류인물이었다면 윤선거는 중도적 서인이었다. 예학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학문을 수용한 그는 당파에 관계없이 사우관계를 형성했고 송시열과 척을 지는 윤휴를 포용하기에 이르렀다. 윤선거의 이러한 태도는 여타의 호서산림의 성향과는 다른 것이었고 훗날 윤선거의 중도적인 태도가 계기가 되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립하게 된 것이다.

흔히 노소분당은 懷尼是非와 같은 사적인 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송시열과 윤선거대부터 이미 분당의 기미가 보였고 그 아들인 윤증대에 와서 懷尼是非,『家禮源流』소유권 분쟁 등을 거치며 분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노소가 분당

7) 오수창, 위의 글, 33쪽.

되는 과정에서 윤선거의 활동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윤선거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역사학계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철학계에서는 2004년 이후로 간헐적인 주목을 받았을 뿐이다.[8]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윤선거의 사상적 특질을 알아보고 호서산림의 분리과정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중도 서인으로서 호서산림내에서 윤선거의 위치를 파악하고자한다.

8) 윤종빈, 「노서 윤선거의 생애와 사상」(명재가학 및 양명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충남대 유학연구소, 2004), 황의동, 「윤선거의 학풍과 사상」(『동서철학연구』 제36호, 한국동서철학회, 2005), 도민재, 「魯西 尹宣擧의 禮學思想」(『儒學硏究』 제18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논문집, 2008), 황의동, 「魯西 尹宣擧의 務實思想」(앞의 책), 최영성, 「魯西 尹宣擧의 삶과 학문-'悔過日新'과 '喚醒實心'을 중심으로」(앞의 책)

Ⅱ. 尹宣擧의 生涯와 工夫

1) 生涯와 師友

윤선거는 1610년(광해군 2년)에 부친의 임지인 영광에서 태어났다. 윤선거의 아버지는 팔송 윤황이고 그의 어머니는 우계 성혼의 여식이다. 윤황은 일찍이 성혼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고 20세가 되던 해에는 성혼의 딸과 결혼하여 일가를 이뤘다. 교육기관의 발달이 미비했던 과거에는 학문의 기본을 가정에서 익혔다. 윤선거 역시 윤황을 통해 외조부 성혼의 학문을 익혔다. 그런데 성혼의 학맥은 부친 성수침을 통해 靜菴 趙光祖-寒暄堂 金宏弼-佔畢齋 金宗直-江湖 金叔滋-冶隱 吉再-圃隱 鄭夢周에게 연결된다. 이들의 학문은 고려 말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정통 도학파에 연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윤선거의 학문 역시 정통 도학파에 연결된다고 하겠다.

24세가 되던 해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했고 25세가 되던 해에 元宗을 太廟에 合祀하여 하자 太學疏를 올려 典禮를 논했다. 병자호란 발발 직전에 올린 소를 계기로 윤선거는 언론이 강개하다는 명성을 얻었고 부친을 뒤이어 척화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후금(청)이 침입했다. 윤선거는 어머니를 모시고 난을 피해 강화도로 들어갔다. 1637년 강화도가 함락되자 권순장, 김익겸, 김상용 등과 의병을 조직해 성벽을 지키고자 했으나 모두 죽었고 부인마저 자결했다. 이 상황에서 윤선거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것도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 하여 微服차림으로 강화도를 벗어났다. 글 읽는 선비가 이름을 바꾸고 미복차림으로 목숨을 구걸한 일은 그의 일생에 있어 최대의 오점이었다. 이 '江都의 일'을 계기로 수십 번의 부름에도 관직에 나가지 않고 평생 '死罪臣'이라 자처했다. 실록에 의하면 '선거는 산림에서 도를 지켜 선비들의 기대가 매우 높았는데, 소명이 내리

면 그때마다 죄를 핑계대어 거절하고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다'[9]고 한다.

1638년 윤황이 해배되어 금산으로 돌아왔다. 1642년에는 유계와 함께 마하산 아래에 山景齊를 지었다. 1644년에는 유계, 송시열, 이유태 등과 신안사에 모여 『心經』을 강의했다.

1646년에는 愼獨齋 金集을 찾아 학문을 익혔다. 윤선거의 나이 37세였다. 김집의 부친은 沙溪 金長生이다. 김장생은 13세에 龜峯 宋翼弼에게 배우고 20세에는 栗谷 李珥에게 배웠다. 33세에는 윤선거의 외조부인 성혼를 찾았다. 이처럼 김장생은 서인의 대학자들을 통달한 수제자였다. 김집의 가학은 그의 부친인 沙溪 金長生-栗谷 李珥에 이르는 율곡학파와 연결되어 있다.

윤선거는 김집 문하에서 이이의 학문과 김장생, 김집 가문의 학문을 수학했으며 서인의 모집단인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유계 등과 많은 교류를 했다.[10] 이렇게 윤선거의 학맥은 愼獨齋 金集-沙溪 金長生을 거쳐 栗谷 李珥에 까지 닿아있다. 조선유학사에서 이와 같이 화려한 학통을 계승한 학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1648년에는 牛山 安邦俊의 『混定錄』과 松江 鄭澈 집안의 『觀時錄』을 참고하여 『癸甲錄』을 편찬했다. "黨禍의 근원을 살피려는 자는 이 책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고 스스로 말 할 정도로 당대의 기록을 잘 정리했다.

윤선거는 權諰를 사이에 두고 송시열과 겹사돈 관계에 있었다. 또 윤선거의 중형인 尹文擧와 송시열은 사돈관계에 있었다. 윤선거는 송시열을 비롯한 송준길·유계·권시 등 당대의 명사들과 동문수학하며 폭넓은 교류를 할 수 있었다.[11] 이처럼 절친하던 송시열과 극이 생긴 것은 1652년 돈암서원에서였다.

송시열이 윤선거에게 "그대는 매우 사성과 좋아지내더니, 사성은 매번 시속을 따른다고 말하기 좋아하고, 그대는 시의 말하기를 좋아하네."라고 말하며 남인 권시와의 교우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윤선거는 이에 대해 "그대와 말할 적에는 시의를

9) 『현종개수실록』 권 21, 현종 10년 4월 14일, 5번째 기사.
10) 이경구, 「산림의 시대를 열다. 김장생과 김집 부자」, 『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 푸른역사, 2009, 참조.
11)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동방미디어, 2000, 52쪽.

좋아하지 않을 수 없네.”라고 답했다. 산골에 머물며 시의를 자주 언급하는 송시열을 돌려서 질책한 것이다. 당시 선비들은 벼슬에서 물러나 산골에 거처하면서 조정의 득실과 당시 사람들 중 누가 현명하고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이에 대해 윤선거는 “선비가 세상에 나가서는 일하는 것이 마땅하고, 물러나서는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의론을 좋아하여 비방이나 칭찬을 挑出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송시열을 질책한 것도 같은 이유임을 짐작할 수 있다.

1653년에는 황산서원에서 만난 송시열이 윤휴를 사문난적이라 칭하며 배척했다. 윤선거는 주자의 말을 인용해 윤휴를 포용했다. 1660년 慈懿大妃 服制 문제를 두고 윤선거의 사우들은 의견이 갈렸다. 송시열은 효종이 인조의 次子로서 왕위에 올랐음으로 자의대비가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휴는 맏아들이 아니더라도 왕실의 宗統을 이었으니 당연히 嫡子로 인정해 斬衰(3년)라고 주장했다. 11월에 이르자 예송논쟁은 막바지에 이르고 사류의 논의는 날로 날카로워졌다. 윤선거는 권시에게 편지를 보내

> …그대가 희중의 평생을 의논한다면 스스로 어떠한 사람으로 보겠으며, 지금은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여깁니까? 우암은 처음에는 희중을 伯夷로 여겼고, 중간에는 의심해서 陸象山으로 여겼고, 마침내는 南袞·沈貞으로 여기니, 세 가지 모두 지나칩니다. 나는 처음에 희중을 밝고 굳건하게 여겼다가, 중간에는 지나치다고 여겼고, 마침내는 희중은 경솔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깊이 희중의 마음을 파악했다고 여겼습니다.… [12]

라고 말하며 송시열이 지나치게 윤휴를 배척함을 우려했다. 이렇게 윤휴를 사이에 두고 호서산림 윤선거와 송시열은 차츰 분열하고 있었다.

---

12) 『魯西遺稿』, 卷 6, 「與權思誠 辛丑正月」

2) 工夫와 思想

유학을 국가의 근본학문으로 삼았던 조선은 禮治主義를 구현하기 위해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소학과 향약을 보급하며 향촌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16세기가 되면 국가의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게 된다. 성리학 이론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다양한 갈래로 뻗어나갔으며 연구된 이론들이 실생활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론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문제와 더불어 禮學은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고 이것은 곧 17세기 예학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듯 17세기 예학의 발달은 조선이 건국된 시점부터 중시했던 유교적 예치질서가 확립된 일련의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당시 조선은 연이은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왕가와 사대부들은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찾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더욱 더 예학에 몰두했다. 그 결과 조선의 17세기는 '예학의 시대'가 되었다.

17세기 예학의 전개 방향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家禮'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13] 16세기에 들어 완성도가 높아진 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은 자연히 儀禮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였고 이것은 주로 '가례'의 시행을 통해 나타났다.

예학에 뛰어난 김장생과 김집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힌 윤선거 역시 마찬가지였다. 윤선거의 예학은 주로 『가례』의 행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윤선거는 당시 다른 예학자들과는 달리 국가전례에 관해서는 거의 논하지 않았다. 예에 대한 윤선거의 사상은 유계와 함께 편차한 『가례원류』와 문집에 실린 예에 관한 글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書家禮原流草本」을 보면 『주자가례』만으로는 시대에 따른 예법의 변화와 그에 따른 損益과 得失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時宜에 따라 더하고 뺀 예속의 득실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가례원류』를 편찬하였다고 하고 있다.[14] 이 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주고받은 예에 관한 서한들을 통해 그의 사

13) 도민재, 「魯西 尹宣擧의 禮學思想」, 『儒學硏究』 제18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논문집, 2008, 66쪽.

상을 살펴 볼 수 있다.

『노서유고』에는 예에 관한 서한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卷9와 卷10에 스승인 김집과 주고받은 편지글이 모두 17편, 송시열이 6회, 송준길이 5회, 이유태가 3회, 기타 13회가 된다.[15] 문집에 실린 글들은 대체로 예를 행할 시에 나타날 수 있는 變禮에 관한 내용이기에 윤선거의 예학사상은 곧 실천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추구할 것 역시 강조했다. 윤선거는 예를 행할 때 古禮와 『家禮』, 그리고 후대의 禮設을 고루 참작하여 절충하여 시행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가례』를 중시하면서, 『가례』에 규정되지 않은 變禮에 대해서는 古禮를 참작하고, 時俗이나 情理에 따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16] 行禮시에 인정을 따르고자 하는 관점은 유고에 여러 차례 보인다.

> 개장 때 조석전과 상식은 『가례의절』로써 살펴보건대 마땅히 설행해야 할 듯합니다. 퇴계 선생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 두 분의 상을 함께 당하여 几筵을 각기 모셨으면 조석전과 상식을 外殯에다 먼저 하고 그 다음 內殯에다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나, 시간이 늦어지고 음식물이 식는 불편 때문에 부득이 나누어서 잔을 올리지 않고 饋와 奠을 함께 올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17]

윤선거가 신독재에게 묻기를 부모상을 함께 당해 几筵을 각각 설치하였을 때 조석전과 상식을 外殯에 먼저 올리고 內殯에 나중에 올리는 것이 옳지만, 시간이 늦어지고 음식물이 식어버리면 情理상 편지 않으므로 饋와 奠을 각각 나누어 한 때에 바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는 예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이 섬기기를 살아있는 이 섬기듯이 한다.'고 하는 예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천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추구할 것 역시 강조했다.

---

14) 도민재, 위의 글, 75쪽.
15) 황의동, 「윤선거의 학풍과 사상」, 『동서철학연구』 제36호, 한국동서철학회, 2005, 303쪽.
16) 도민재, 위의 글, 83쪽.
17) 『魯西遺稿』 卷 9, 「問愼獨齋-又問」.

이러한 합리성과 실천성을 동시에 가진 윤선거의 예학은 이후 少論의 영수였던 아들 윤증에게 전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윤선거의 예학사상은 기호예학 중에서 특히 소론계열 예학의 연원에 해당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겠다.[18]

예학에서 뿐만 아니라 윤선거는 생활에서도 실천을 중시했다. 윤선거의 문집을 살펴보면 성리학에 관련된 글을 찾기 어렵다. 이것은 동시대의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등이 여전히 理氣心性論에 몰두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독특하다 할 수 있다. 윤선거가 살았던 시기는 거듭된 전쟁으로 인해 이론적 학문인 성리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시기이다. 사상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따라서 변모했다. 윤선거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론을 중시하는 성리학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학문을 주장했다. 그는

> "聖學의 宗旨는 모두 사서에 있으며 集註章句에는 다시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가 없다. 후세의 선비들은 저술에 일삼을 것이 없다."[19]

> "배우는 자가 근심할 일은 단지 진실한 마음을 수립하지 못하고 몸소 실천함이 독실하지 못하는데 있을 뿐이다. … 聖賢의 遺訓을 가지고 표준을 삼아 講究하고 체험해 살펴서 익히고 실천하기를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여 매양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20]

고 하며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성리학이 주자 이후로 발전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퇴계와 율곡에 이르러 큰 빛을 발했다고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후학들은 앉아서 논하기보다는 실심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배우는 이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實心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1]

윤선거가 실심의 확립을 중시한 이유는 이이의 말대로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만

18) 도민재, 위의 글, 69쪽.
19) 『魯西遺稿』附錄 上, 遺事.
20) 위의 글.
21) 위의 글.

사가 모두 거짓이 되니 어디를 간들 행할 수 있겠으며, 마음이 실로 진실하다면 만사가 모두 진실할 것이니 무엇을 한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22] 그래서 윤선거는 조정에서 덕이 높은 유현을 숭상하여 산림을 중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도하게 虛名을 중상하여 학자들이 본래의 실심을 잃을까 걱정했다.[23] 이것은 실천을 등한시하고 허명을 앞세우는 당시의 弊風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24]

실심이 확립되면 그 다음에는 實德을 함양할 것을 강조했다. 맹자는 인간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착한 본성을 잃기 쉽다고 말한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본심을 지키고 찾으려는 修己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심을 통해 내면의 진실된 덕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實德이다. 이 실덕을 지닌 자가 바로 유가의 바람직한 인간상인 君子인 것이다. 윤선거는 이러한 實德을 함양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실덕의 함양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는 삶을 생활화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아를 완성해갔던 것이다.

이처럼 윤선거는 먼저 실심을 확립하고 實德을 함양하여 實功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심, 실덕, 실공으로 대표되는 그의 務實사상은 유학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짙고, 나아가 修己治人, 內聖外王의 진실한 구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5]

윤선거의 이러한 실천을 중요시하는 사상은 아들 윤증을 통해 더욱 깊게 연구되었고 이러한 사상은 조선 후기 정치· 사상사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

22) 『栗谷全書』, 卷 21, 「聖學輯要」3.
23) 『魯西遺稿』, 附錄 上, 「遺事」.
24) 최영성, 「魯西 尹宣擧의 삶과 학문-'悔過日新'과 '喚醒實心'을 중심으로」, 『儒學硏究』 第18輯, 2008, 17쪽.
25) 황의동, 「魯西 尹宣擧의 務實思想」, 『儒學硏究』 第18輯, 2008, 57~58쪽.

Ⅲ. 湖西山林의 分岐와 尹宣擧

서인의 모집단인 호서산림은 남인 수용문제를 두고 갈라지게 되었다. 주자 절대주의자인 송시열은 윤휴 등이 주자에 대한 해석을 자유롭게 해 갈수록 이들과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이들의 이론이 처음 충돌을 일으킨 것이 현종 즉위년에 일어난 자의대비 복제문제 즉, 기해예송(1659)이다.

그런데 예송은 단순한 학파간의 이론 논쟁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17세기 사회에서 각 학파 내지 붕당들이 나름대로의 학문적 기반 위에서 자신들의 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한 전형적인 '정치형태로서의 전례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26]

효종이 승하한 기해년 당시 대신들은 예학의 대가인 송시열과 송준길 등에게 자의대비 복제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송시열은 효종이 대통을 이었지만 인조의 차자이므로 古禮의 體而不正設에 따라 자의대비는 작은 아들의 복 즉,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7] 이에 대해 영의정 정태화 등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체이부정'의 인용은 후일에 화를 초래할 수 있으니 『國朝五禮儀』와 『大明律』에 의해 장자, 차자 가릴 것 없이 기년복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윤휴는 고례를 송시열과 달리 해석하여 효종이 비록 차자이지만 장자로서의 대통을 이었으니 장자로 예우하여 자의대비는 최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은 전국의 유생들 사이로 확산되었다. 현종은 정태화의 의견을 따라 기년복으로 정했고 논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데 이듬해에 허목이 체이부정이라 함은 庶子 즉 妾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효종은 次嫡子로서 첩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자의대비의 복제는 기년이

---

26) 고영진, 「17세기 후반 근기남인학자의 사상-윤휴· 허목· 허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3, 한국역사연구회, 1994, 177쪽.

27) 첫째 正而不體는 맏손자가 승중한 경우를 말하고 둘째 體而不正은 서자를 후계자로 세운 경우를 말하며 셋째 正體不得傳重은 맏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경우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傳重非正體는 庶孫이 후계자가 된 경우를 말한다.(국역 『노서유고』 4권, 242쪽 참조)

아니라 3년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28]

예송이 진행될수록 송시열과 송준길은 서인의 중심인물로 부상했고 이유태는 송시열과 소원해졌다. 권시는 송시열과 송준길을 강력히 비판하며 3년설을 주장하여 물의를 빚었던 윤선도를 敢言之士라 하여 두호했다가 서인의 공격을 받았다.[29] 그리고 송시열은 예송을 계기로 윤휴와 관계를 끊었다.[30] 10살이나 어린 윤휴를 만나 "30년의 독서가 참으로 가소롭다."고 자탄했고 윤휴가 과거에 응하지 않고 두문불출하며 학문에 열중하자 그를 伯夷에 비유했던 송시열이었다.[31]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이들도 윤휴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하지만 윤선거는 처음과 다름없이 윤휴를 대했다.[32] 윤선거는 윤휴에게 편지를 보내 이유태와의 반목을 걱정하며 그를 찾아가 마음속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함께 어울리는 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조언했다.[33]

윤선거의 걱정과 조언에도 불구하고 예송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사류의 논의는 날로 격렬해졌고 윤선거는 송시열과 권시에게 편지를 보내 사태의 심각성을 논했다. 이때부터 윤선거는 송시열이 과하게 윤휴를 배척한다고 지적했으나 사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장기간에 걸친 논쟁 끝에 기해 복제는 국제의 오례의대로 시행하였고 고례를 쓴 것이 아니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는 현종의 답이 내려왔다. 더불어 차후에 또 다시 예론을 빙자하여 풍파를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휴와 송시열의 관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

---

28) 이희환, 『朝鮮後期黨爭硏究』, 國學資料院, 1995, 17쪽.

29) 김세봉, 「17세기 호서 지식인의 사회사상」, 『17세기 한국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6, 163쪽.

30) 『숙종실록』 권 3, 숙종 1년 4월 25일, 3번째 기사. "기해년에 처음 慈懿大妃의 服制를 정할 적에 윤휴가 먼저 三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었고, … 宋時烈도 윤휴를 속으론 음험하고 겉으로는 陽性인 체하는 사람으로 여기어 마침내 관계를 끊으니 …"

31) 이경구, 「근본주의자를 위한 변명, 윤휴」, 『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 푸른역사, 2009 참조

32) 『숙종보궐정오』 권 60, 숙종 43년 9월 2일, 1번째 기사. "…윤선거와 이유와 오정창 등 약간의 사람들만이 그를 사랑하고 중하게 여겼다.…"

33) 『白湖全書』 卷 16, 「原書」(尹宣擧)

34) 이희환, 위의 책, 19쪽.

다. 이처럼 윤선거와 윤휴, 송시열의 사이가 처음부터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아니다.

> 驪江(윤휴)이 자기 말을 스스로 내세워 주자의 교훈과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우리 선비의 家法에 있어서 그 大體가 같다고 할 수 없네. 그렇다고 그를 姦程·僞朱하던 자와 罪科를 같이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번 잘못 빠지면 끝내는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을지는 어찌 알겠는가. 그런데 더구나 그 무리들의 어리석고 망녕된 자들은 서로 그의 설을 자랑하면서 말하기를 "白湖의 견해가 주자보다 높다."하며 공공연하게 방자히 떠들어 대어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얼씬도 못하게 하는구려. 당초에 여강이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은 다만 한 때에 자기 뜻을 쾌하게 하려는 데 불과한 것으로 자기 역시 그 폐해가 이 지경에 이를 줄은 몰랐던 것일세.[35]

위 글은 1660년 4월에 송시열이 윤선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윤휴에게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 죄를 姦程·僞朱에 비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윤휴의 잘못이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송시열은 이때까지만 해도 윤휴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휴에 대한 논쟁은 1665년이 되자 더욱 격화되었다. 당시 우계·율곡의 연보를 간행하기 위해 김장생의 문하생들이 동학사에 모였다. 이곳에서 다시 윤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송시열은 윤선거에게 집요하게 질문했다.

> 이와 같이 오래도록 다툴 필요 없이 일단 한마디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네. 공이 한번 말해 보게. 주자가 옳은가 윤휴가 옳은가, 또 주자가 그른가, 윤휴가 그른가를 말일세.[36]

주자 아니면 윤휴를 택하라는 질문이었다. 윤선거는 "흑백으로 논하면 윤휴는 흑이고, 음양으로 논하면 윤휴는 음이네."[37]라고 했다. 송시열은 윤선거의 대답에 만

35) 『宋子大全』, 卷 38, 「答尹吉甫-庚子四月」.
36) 『宋子大全』, 卷 122, 「與或人」.

족했고 논쟁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윤선거가 집으로 돌아가 송시열에게 “저번 날 음양 흑백설은 다만 의론하는 가운데 사소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그 사람의 전체를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다.”[38]라고 편지를 보냈다. 지난날의 평가가 윤휴의 학문에 관한 것이지 그의 인품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평이었다. 송시열에게 있어 윤선거는 사문난적을 감싸는 인물에 불과했다.

기해예송이 마무리 되고 서인이 권력을 장악했다. 초야에 은거하던 송시열은 서인의 중심인물로 급부상해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윤선거와 윤휴와의 관계는 송시열의 강요와 간섭으로 인해 점차 소원해졌다. 그러던 중 윤선거가 죽었다. 1669년이었다. 송시열은 벗의 죽음을 애도하며 제문을 지어 보냈다. 제자이자 벗의 아들인 윤증은 송시열의 제문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윤증이 송시열이 배척한 윤휴의 제문도 받은 것이었다. 송시열은 윤선거와 윤휴의 관계가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윤증의 태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송시열은 이에 대해 격노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마음을 윤선거의 묘갈명에 담았다.

윤선거가 죽고 5년이 지난 후 갑인예송이 일어났다. 효종의 비이자 현종의 모후인 인선왕후의 상에 자의대비는 어떤 복을 입어야 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처음에 집권서인들은 기년복으로 정했으나 성복 하루 전에 자신들의 종주였던 송시열의 의견과 차이를 발견하고 대공복으로 정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효종 종통의 정통성 문제까지 제기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현종은 직접 예서를 검토해 자의대비의 복을 기년복으로 할 것을 명했다. 복제가 개정되고 한 달 후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했다. 숙종은 척신 김석주, 김우명, 남인들과 손을 잡고 서인을 축출하기 위해 예론을 이용했다. 이로 인해 인조반정 이후 50여 년 동안 지속되던 서인 정권은 남인 정권으로 교체되었고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김석주 등 외척 세력이 득세하게 되었다.

정계는 빠르게 재편되었다. 이 기회를 틈타 남인은 서인의 종주인 송시열을 몰아

37) 위의 글.
38) 위의 글.

내고자 고군분투했고 숙종은 이런 남인의 청을 마지못해 들어주며 자신의 왕권을 다져나갔다. 그러나 숙종 원년 7월이 되자 정언 이수경이 영의정 허적과 좌의정 권대운을 공격했다. 이들이 공적과 재덕도 없는 閔熙를 우의정으로 首薦한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39] 이 일을 계기로 남인들 사이에 미묘한 대립이 생겼다.

숙종 4년이 되자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이조참의 유명천이 사직 상소에서 이옥의 부제학 의망은 부당하다며 이조판서 홍우원을 탄핵한 것이다. 이옥은 이전에 송시열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학덕을 칭송하고 스승으로 모실 것을 간청했으나 송시열이 예론으로 인해 유배된 후에는 오히려 고묘에 앞장섰다. 그런 이옥을 홍우원이 부제학으로 천거했다 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40] 이 일을 계기로 남인은 淸南과 濁南으로 분열했다. 외부의 공동의 적인 서인을 정계에서 몰아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분열한 것이다.

탁남은 허적 일파였고 청남은 허목과 윤휴 일파였다. 서인이 없는 정계는 정치를 주업으로 하던 허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들의 대립은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다. 숙종 5년에 허목의 소가 올라왔다. 내용은 서인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허적을 비판하며 그의 권력 독점 역시 비난했다. 그러나 숙종은 허적을 감싸고 허목을 퇴진시키는 등 정국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 일로 인해 청남은 와해되었고 둘로 나눠졌던 남인은 다시 하나로 통합되었다.[41]

그러던 중 숙종 6년에 허적이 그의 조부 허잠이 시호를 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다. 날씨가 궂어 비가 내렸고 숙종은 이를 염려해 궁에서 쓰는 油幙과 차일을 찾아 주라고 명했다. 그런데 이미 허적이 가져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왕실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버린 것이다. 숙종은 권력의 힘을 믿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허적이 불쾌했다. 당장 牌를 내려 잔치에 있는 김만기와 유혁연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남인 훈련대장 유혁연을 해직시키고 김만기를 훈련대장으로 삼았다.

39) 이희환, 위의 책, 26쪽.
40) 이희환, 위의 책, 28쪽.
41) 이희환, 위의 책, 30쪽.

남인에서 서인으로의 정권 교체가 시작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주요 관직에 있던 남인들은 실각하고 서인들이 요직에 등용되었다. 남인의 실각을 가속화 시킨 사건이 있다. 바로 '許堅의 獄事'다. 허견은 허적의 서자로 그의 옥사는 정원로의 고변이 발단이 되었다.[42]

병약한 숙종에게 후사마저 없자 이를 걱정하는 허적에게 민희가 종친인 복선군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를 들은 허견이 정원로에게 발설했고 정원로는 이것을 고변한 것이다. 정원로의 고변으로 숙종은 바로 관련자를 잡아들여 심문했다. 심문 결과 복선군과 허견이 사실을 인정했고 각각 교수형과 능지처참을 당했다. 허적은 고명대신으로 인정받아 부자 연좌율에 의해 삭직만 되었다. 그러나 후에 허견의 겁탈사건에 관여한 것이 드러나 사사당하고 말았다. 허적 뿐만 아니라 윤휴마저도 허견의 옥사로 인해 사사되었다. 그의 죄목은 대비를 '조관'하라고 한 일과 복선군 형제와의 친분이 돈독한 점, 도체부의 복설을 주장 한 것, 부체찰사의 차출 때에 자신이 임명되지 않자 왕 앞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 외에도 수 많은 남인이 허견의 옥사로 인해 제거되었다. 혼란한 정국이 정리되고 숙종은 김석주와 대신들을 불러 공신들을 책봉했다. 김만기와 김석주가 1등, 2등에는 이립신, 3등은 남두북, 정원로, 박빈 등 이었다. 이들은 보사공신에 봉해졌다. 정계에 진출해있던 남인들이 실각하고 서인들이 등장했다. 이것이 경신환국이다.

경신환국 이후 정권을 재탈환한 서인들은 '임술고변'을 통해 분열하게 되었다. 임술년 10월 21일에는 김환이 남인을 몰아내기 위한 고변을 했다. 김환은 원래 서인으로 남인에 의해 벼슬자리를 얻은 인물이었다. 이틀이 지난 후에는 김중하의 고변이 있었고 27일에는 김익훈의 고변이 이어졌다. 고변 내용은 하나 같이 남인이 역모를 꾸민다는 것이었다. 김환의 고변으로 바로 국청이 설치되어 국문을 시작했다. 연이은 고변에 대질 심문이 이루어졌다. 심문 결과 고변자는 여럿이지만 역모에 관련된 자는 허새와 허영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형도 신속히 결정되었다. 김환의 고변이 있은지 10여일도 못되어서 허새 등을 처형시키고 역모의

42) 이희환, 위의 책, 32~34쪽.

謀主로 지목받았던 이덕주를 고문시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럿 있는데 허새를 빨리 처단하라고 청한 점이나 첫 고변자였던 김환이 고변하기 전에 당시 권력자였던 김익훈과 상의한 점이다.[43]

임술고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정권을 다시 잡은 서인이 환국 과정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한 남인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김익훈이 김환 등을 꾀어 일을 모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서인내에서도 김익훈이 꾸민 일에 대해 생각을 달리 사류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고변 사건에 대한 논쟁 중에 김익훈의 비리 문제가 드러나자 김익훈의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은 계속 병을 이유로 숙종의 거듭된 부름에도 고향에 은거해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사에는 조정에 의견을 피력하며 정권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다. 임술고변과 김익환의 처벌 문제도 당시 조정의 중요한 쟁점이었기에 숙종은 박세채, 윤증과 함께 송시열을 불러들여 의견을 물으려 했다.

숙종은 조지겸을 보내 멀리서 힘든 걸음을 하는 老臣을 맞이했다. 조지겸을 통해 김익훈이 김환을 꾀어 고변사건을 꾸민 것을 듣고 김익훈을 죽여도 애석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송시열이 서울에 도착해 김수항, 민정중, 김만기 등의 설명을 듣고서는 김익훈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

조정에 나서 김익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고 외려 효종의 世室문제와 태조의 시호 문제만 거론했다. 숙종이 송시열의 의견을 듣고 김익훈의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송시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문순공 이황의 문인이었던 조목은 이황이 죽은 뒤에 그의 자손을 보기를 마치 동기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가 관직에 있을 적에 지성으로 경계하여 과실을 면하게 하여 주었으므로, 당시나 후세에서 모두 조목이 그의 스승을 위하여 도리를 다하였다고 일컬었습니다. 신은 문원공 김장생에게서 수학하였으므로, 그의 손자 김익훈과 신의 정과 뜻이 서로 친한 것은 다른 사람과 자연히 다릅니다. 근일에 김익훈이 죄를 얻을 것이 매우 중한데, 신이 평소에 경계하지 못하여서 그로 하여금

43) 이희환, 위의 책, 57쪽.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신은 실지로 조목의 죄인입니다."[44]

김익훈을 죽여도 애석하지 않다던 기존의 의견을 뒤엎고 월천 조목의 고사를 끌어다가 스승의 손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 죄를 얻었으니 자신이 죄인이라 한 것이다. 학덕이 높고 연륜이 깊은 송시열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렸던 서인 소장파들은 송시열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고 말았다.

사류들의 실망은 김익훈 처리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송시열이 세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언급한 태조의 시호추상에 관한 건도 문제가 되었다. 숭명의리를 강조했던 송시열은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을 大業을 위한 일이라 규정하고 이성계의 시호에 昭義正倫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45] 이에 대해 박세채는 태조의 위화도회군은 化家爲國을 위한 것으로 대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제왕의 시호는 王業을 중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회군은 왕업을 이루기 전이므로 시호를 추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46]

태조 시호추상문제로 인해 송시열과 박세채의 사이에는 불화가 생겼으며 서인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졌다. 양측의 첨예한 주장이 오고가고 어느새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分岐되어 있었다. 송시열이 노론의 대표였고 박세채와 윤휴가 소론의 대표였다.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심화되는 데는 윤선거, 윤증 부자와 송시열간의 반목도 큰 역할을 했다. 앞서 언급했듯 송시열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지목된 윤휴를 윤증의 부친인 윤선거가 끝까지 두둔 한 것이다. 윤선거가 죽고 윤증은 절친했던 송시열에게 아버지의 묘갈명 작성을 부탁했다. 묘갈명을 부탁하며 도움이 될 법한 자료를 모두 송시열에게 가져다주었다. 그런데 거기에 윤선거가 죽기 전에 쓴 己酉擬書도 있었다. 송시열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4)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1월 19일, 2번째 기사.
45)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3월 25일, 1번째 기사.
46)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4월 19일, 1번째 기사.

… 이제 마땅히 이 두 가지를 우선으로 해야만 私意가 물러가고 公論이 현행되며 아첨한 자가 자취를 감추고 곧은 말이 다투어 나와 나의 일신이 항상 정대광명한 처지에 서게 되는 것이니 군자의 임금을 바로잡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급선무라는 것은 집사께서는 오늘의 急務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천하의 형세가 합해지면 강하고 나누어지면 약해진다'는 것이 바꿀 수 없는 의론이라 생각합니다. 서인, 남인이란 偏論이 깨지지 않으면 梁益의 절반을 가지고 결코 吳魏의 전체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川洛의 標榜이 제거되지 않고는 집안 싸움의 變亂이 자못 外侮의 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고질병임을 사람마다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치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건대 일이란 本末이 있는 것이니 먼저 그 근본을 정하면 끝은 순종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외람되게 진술하오니 兩賢의 의론이 정해지면 異端이 일어날 까닭이 없으며 선비들의 습관이 남을 욕하는데 망가지지 아니하며 人才를 그릇에 따라 통해서 쓰게 되면 편벽된 논의가 점점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47)

윤휴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작성해두었다가 보내지 않고 두었던 것을 윤증이 송시열에게 보인 것이다. 편지를 본 송시열은 자신이 배척한 윤휴를 편드는 윤선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여과 없이 묘갈명에 표현했다. "박세채가 쓴 행장을 따라 쓸 뿐 새로 짓지는 않는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윤증은 거듭해 스승을 찾아 수정을 부탁했으나 송시열은 그때마다 글자 몇 구를 고칠 뿐 내용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않았다.

송시열은 윤선거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본인도 "항상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한 강화도의 일을 들먹이기 시작했다. 처음 그가 지어 보낸 제문은 다음과 같다.

중년에 大亂을 만나서는 구차히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文山이 倉卒한 일을 당하여 독약을 마셨으나 죽지 못한 것과 같으며 또 아버지가 살아 계시므로 감히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서였던 것입니다.

47)『魯西遺稿』別集,「擬答宋英甫」

옛 고사를 끌어다 선거의 죽음을 ‘아버지를 두고 죽을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비굴하게 죽음을 피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甘心莖荳不知羞	수치를 모르고서 말꼴을 먹고는
靦面重來躡儁遊	뻔뻔스레 다시 와서 호탕하게 노니누나.
莫向淸流涴衣袂	청류를 향하여 옷소매 더럽힌다 하지마소.
却恐衣袂涴淸流[48]	때 묻은 옷소매에 청류 더럽혀질까 두렵소.

이 시는『송자대전』부록에 실린 어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시를 읊기 전에 나눈 이야기는 “윤휴가 斯文의 亂賊임에도 길보는 끝까지 그를 두둔하였으니, 이 역시 異端이다. 내 어찌 배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이다. 또 주석에 의하면 “생각건대, 尤菴이 이 시를 인용한 뜻은 美村이 이미 江都의 일로 失節했고, 지금 또 윤휴에게 현혹되어 실신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때문이다.” 라고 되어있다.

송시열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모욕하자 윤증도 격분했다. 그러던 중 윤증이 스승 송시열의 처신에 대해 비판한 辛酉擬書가 세상에 드러났다. 윤증은 편지에서 송시열의 학문이 주자에 근본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질이 매우 편벽되어 주자가 말하는 ‘剛毅峻截’의 실학을 배우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세상을 어지럽혀 후세의 嗤笑를 면치 못할 것이라 했다. 또 숭명벌청의 의리를 말로만 내세우지 말고 내실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송시열은 존명벌청의 의리를 구체적으로 이룩한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서 오로지 이름만 세상에 드러냈으니 병자년의 국치를 설욕하고자 한다면 ‘허명’과 ‘이행’을 하루속히 버리라고 주장했다.[49]

처음 윤증은 이 편지를 박세채에게 보였다. 박세채는 파문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보내지 말 것을 청했고 윤증은 그것을 받아들여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박세채의 사위이자 송시열의 손자인 송순석이 편지를 몰래 베껴 송시열에게 가져다주었

48)『宋子大全』, 附錄, 卷 16, 語錄 3
49) 이은순,「명재 윤증의 생애와 사회개혁사상」,『17세기 한국 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6, 275~276쪽.

다. 송시열은 편지를 보고 “윤증이 나를 죽이려든다”며 격노했다.

그렇다면 君師父一體를 강조하는 조선에서 윤증이 스승과 척을 지면서까지 비난을 서슴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단지 아버지를 향한 스승의 비난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윤증의 이러한 背師는 당시 경연에서도 거론된 만큼 큰 사건임에 틀림없다.

당시 조선 사회는 거듭된 양난으로 인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는 시점이었다. 이 상황에서 對淸外交의 實利的인 측면이 기존의 崇明義理를 대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性理學的 名分論者들은 崇明義理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확장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義理論을 사이에 두고 분화되는 기득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三田渡碑文을 둘러싼 갈등이다.

병자호란이 종식되고 세워진 삼전도비문은 國恥의 상징물이었다. 그런데 이 비문을 찬술한 李景奭을 三學士나 金尙憲 같은 崇明義理論者들이 비방했다. 비방은 이경석 사후에도 그치지 않고 오히려 배가 되었다. 北伐의 先鋒에 섰던 송시열과 그의 동료들이 비방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서인 중에도 국제적 현실론을 고려한 인물들이 등장했다. 윤증·박세채·박세당 등 서인계 소장파 학인들이 현실성을 상실한 학문을 바로 잡고 조선의 실정에 맞는 유학 원래의 의미대로의 실학을 강조하며 송시열계와 맞서기 시작한 것이다.[50] 이들은 밖으로는 병자호란 이후 야기된 국제 관계의 변화, 특히 숭명 의리와 대청 실리 외교의 문제가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 큰 갈등을 일으켰고, 안으로는 양란 이후의 사회 변동과 경제적 파탄이 관념화된 주자학적 의리론과 명분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역사적 시련을 제기했다.[51]

박세당은 이경석의 碑文을 지으면서 송시열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남구만은 죽기 전에 張維는 용서하고 이경석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심이 담긴 송시열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 인조가 오랑캐인 청에 항복했으므로 당시 조정을 떠나지 않았던 신하들

50) 이은순, 「明齋 尹拯의 生涯와 思想的 淵源」, 『儒學硏究』 5, 1997, 34쪽.
51) 이은순, 「명재 윤증의 생애와 사회개혁사상」, 『17세기 한국 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6, 268쪽.

은 어느 누구라도 비문을 지어야 했고 청에 사신으로 갔어야 했음을 지적했다. 윤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국제 정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북벌을 주장하는 송시열을 향해 대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명성만 높일 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없고 내정이나 국방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52]

그렇다면 윤증은 왜 스승과는 다른 現實觀을 갖게 되었을까? 사실 윤증은 주자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다른 학문에 배타적인 송시열과는 달리 학문에 대해 개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윤증의 이러한 성향은 아버지 윤선거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윤선거는 성혼의 절충주의적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이단사상에 덜 엄격하였다. 그로 인해 송시열이 사문난적이라 공격했던 윤휴의 학문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교류도 계속했던 것이다.[53] 윤증도 아버지의 성향을 물려받아 학문을 수용하는 자세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이었다. 그의 문인들을 살펴보면 양명학을 집대성한 정제두와 양득중, 外交에서 실리를 추구하던 박세채 등과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제지간이자 인척관계이기도 한 정제두와의 교류는 특별했다. 『明齋遺稿』과 『霞谷集』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먼저 보이는 편지는 정제두가 윤증에게 보낸 것이다. 1692년에 보낸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왕씨의 학문에 대하여는 구구하나마 조그만 소견이 없지 아니해 그대로 매몰시킬 수 없어 간간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만 누가 들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요새는 학문을 힘쓰지 않은 지 오래되어 저 자신 발명한 것도 없고 도학의 실제에 하등 보탬도 없이 한갓 위로는 선생께 누를 끼치고 아래로는 시속의 시끄러운 비평만 불러일으켜 장차 낭패의 지경을 면치 못할 것 같사오니, 다만 송구한 생각뿐입니다. …[54]

당시 정제두는 이이와 성혼이 문묘에서 축출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안산에 기

52) 이은순, 『朝鮮後期黨爭史硏究』, 一潮閣, 1993, 9~12쪽.
53) 고영진, 「윤증과 박세채의 학문적 교유」, 『역사학연구』 제31집, 2007, 10쪽.
54) 『霞谷集』 Ⅰ. 書類, 「答尹明齋書 壬申」

거했다. 정치에 뜻을 접고 학문에 몰두해 양명학에 대한 일련의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주자학만을 진리라고 여기는 학계의 풍토에 의해 함께 논의할 대상이 없음과 스승에게 누를 끼치는 마음을 죄스럽게 여기고 있다. 윤증이 이에 대해 어떤 답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 그대는 평소에 뜻이 정해져 있을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덕학에 힘써 진전시켜 명망과 실제가 부합하도록 더욱 궁구하여 우리 도의 중임을 맡는 분이 되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전에 양명의 글을 탐독하시어 사우들의 근심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55]

이 편지는 5년이 흐른 뒤 윤증이 정제두에게 보낸 것으로 '양명의 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당시 사회에서 禁書로 지정되어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陽明學書를 몇몇 士友들이 돌려보고 이를 바탕으로 王學을 토론한 것이다.[56] 이것을 보면 5년 전에는 함께 논쟁할 대상이 없었으나 주자학 일변도의 사류가 바뀌어 암암리에 양명학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행해짐을 알 수 있다. 윤증은 정제두가 금서를 읽고 버렸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며 그의 안위를 걱정했다. 동일한 편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증은 이 편지에서 정제두가 『經學集要』에서 '知能'·'知行'·'精一'·'明誠'의 德目을 합하여 명한 '德學'의 勉進을 권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사이에 이미 양명학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진행됐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57]

윤증은 1699년에 보낸 편지에도 '德學'을 언급했다. 그리고 '수양하시는 여가에 얻은 바를 때때로 저에게 일러 주신다면 정신이 혼미한 이 노경에도 한때나마 각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58]라고 했다. 이미 정제두는 스승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은 양명학을 공부하고 있음을 밝힌 후였다. 윤증은 제자가 王學에 몰두해 있음을 알고

55) 『明齋遺稿』 第18卷, 「與鄭士仰 齊斗 丁丑五月七日」
56) 이은순, 위의 책, 21쪽.
57) 이은순, 위의 책, 같은 쪽.
58) 『明齋遺稿』 第18卷, 「與鄭士仰 己卯二月十八日」

도 수양의 결과를 일러 달라 청하고 있는 것이다.

정제두는 1702년에 스승에게 편지를 보내 양명학을 論辨했다. 이 편지를 쓸 무렵 정제두는 이미 학문의 완숙기에 이르렀다. 왕학의 중요저술인 『學辯』과 『存言』 등의 집필을 끝내 양명학의 높은 경지에 올랐던 것이다.[59]

> … 이른바 왕씨의 설이란 것도 그 나름으로서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程朱와는 같지 아니하나, 그 취지는 본래 정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두가지 점에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곧 버리자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변명해 말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수백 년간에 여러 선비들이 분분히 말이 많았던 것도 이 까닭입니다. 진실로 꼭 부득이 해서가 아니었다면 어찌 감히 공연한 異說을 하여 悖亂을 自招하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현명하신 선생께서 깊이 양해하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기에 달린 것이요, 제가 감히 口舌로 이러니저러니 할 것이 못됩니다. 보내 주신 가르침을 헛되이 저버릴 수 없어 이와 같이 당돌함을 무릅쓰고 소신을 아뢰오니 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60]

편지에서 보이는 '보내 주신 가르침을 헛되이 저버릴 수 없어'라는 구절을 미루어 보면 정제두의 왕학연구에 윤증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제두의 편지에 화답하듯 윤증은 1704년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 …과연 그대가 끝내 양명학에 빠져서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대와 벗을 맺은 우리가 편지 한 통 왕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세의 질책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은 저 자신의 의사가 이미 쇠잔해서 남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 전혀 착실한 공부가 없고, 이 때문에 철저히 궁구하고 따져서 서로 간에 참된 시비를 구하여 취사를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번 『朱子書節要』의 여러 책을 논변한 곳을 읽을 때마다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반성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61]

---

59) 이은순, 위의 책, 25쪽.
60) 『霞谷集』 Ⅰ. 書類, 「答尹明齋書 壬午」
61) 『明齋遺稿』 第18卷, 「與鄭士仰 甲申一月十二日」

글 속에서 윤증은 주위의 눈을 피하여 지난날 정제두와 그 밖의 여러 학자가 모여 왕학을 토론했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왕학 勉進을 정제두에게 당부하고 있다. 또 그러한 성과의 개략이라도 보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글을 보낼 무렵의 윤증은 老論에게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던 시기이고 정제두 역시 朴世采, 閔以升, 朴鐔 등 同學들이 차례로 죽어가던 시기이다.62)

양명학에 우호적인 윤증의 태도는 다른 편지에서도 엿볼 수 있다. 1708년과 1711년에 정제두에게 보낸 편지에는 각각 '덕학이 날로 진전되고 조용히 수양하시어 멀리 있는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63), '늙었다고 해서 스스로 해이해지지 말고 더욱 타고난 본성을 채우고 다 발휘하여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저의 바람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64) 라고 되어 있다. 자신은 이미 老衰했으나 정제두는 양명학에 있어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니 그에게 거는 학문적 기대가 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윤증은 주자학일변도의 시세에 크게 반하지는 않으나 제자의 양명학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그의 학문과 정치사상은 16세기 이래 변화하는 조선에 적합하도록 따라 변화했다. 때문에 그는 일생을 두고 송시열의 名分論的 性理學을 극복할 수 있는 現實論的 實學을 정립하려 하였고 그에 바탕을 둔 實利論的 政論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65)

윤증의 이러한 성향은 또 다른 제자 德村 梁得中과의 교류에도 보인다. 양득중은 영조대에 관직에 나아가 탕평책의 실시를 건의하고 송시열의 북벌론을 비판했다. 또한 허구적인 학문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實事求是'만이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학을 강조하였다.66)

양득중은 초기에 유계의 문인이었던 박태초로부터 양명학의 기초를 익혔고 정제두와 교분이 깊었던 윤증, 박세채 등에게 학문을 익힘으로써 그 깊이가 깊어졌다.

---

62) 이은순, 위의 책, 23쪽.
63)『明齋遺稿』第18卷,「與鄭士仰 戊子二月二十七日」
64)『明齋遺稿』第18卷,「與鄭士仰 辛卯二月二十八日」
65) 이은순, 위의 책, 27쪽.
66) 이상선,「明齋와 德村의 交遊考」,『儒學硏究』第17輯, 2008, 163쪽.

양득중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명학을 기본으로 실학을 더했다. 훗날 그의 학문이 李建芳과 鄭寅普 등 강화학파 양명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洪大容, 朴趾源, 朴齊家 등 北學派 학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67]

특히 實事求是의 학문을 강조하는 양득중의 성향은 경연에서 강하는 『朱子語類』 대신 『磻溪隧錄』을 제안하는 상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 … 근세에 호남의 儒士 柳馨遠은 바로 그것을 잘 강구하였으니, 처음으로 田制에서부터 說敎, 選擧 및 官職, 兵祿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미세한 부분을 모두 擧論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그것을 『隨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무릇 13권이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그것을 신의 죽은 스승 尹拯의 집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자손이 바야흐로 호남의 扶安과 경기의 果川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그 고을의 수령에게 명하여 그 책을 가져다 바치게 하여 乙覽에 대비하도록 하시고, 곧 중외에 나누어 반포해서 차례대로 시행하게 하소서.[68]

양득중이 이처럼 『반계수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스승 윤증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윤증은 이미 유형원의 6촌인 柳載遠을 통해 『반계수록』을 접하고 있었다. 관련된 기록이 『명재유고』에 보인다.

> 『磻溪隨錄』을 아직 다 읽지 못했는데 병으로 정신이 혼미하니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매번 책을 펴서 볼 때마다 그 규모가 크고 식견과 지취가 높은 것에 대해 감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만나 보지 못한 한스러움을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 [69]

유고의 글을 보면 『반계수록』에 담긴 내용에 대해 감탄하며 그 중요성을 높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득중은 스승을 통해 『반계수록』의 중대성을 일찍이

---

67) 이상선, 위의 글, 167쪽.
68) 『영조실록』 권 53, 영조 17년 2월 23일, 3번째 기사.
69) 『明齋遺稿』 第21卷, 「答柳海美 載遠 [辛卯四月二日]」

전수받아 훗날 임금에게 진언한 것이다.

윤증은 정제두, 양득중 뿐만 아니라 소론의 중심인물로 주목받았던 박세채와도 교유했다. 윤증과 박세채는 사상적으로 주자와 이이의 학문을 기반으로 1680년에 일어난 경신환국 이후 노소분당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소론으로 자정하며 변화를 가지고 온다.[70] 윤증과 박세채의 교유는 1658년에 시작되었다. 이들은 성리학과 예학 등 학문적인 것부터 회니시비와 노소분당 등 정치적인 부분까지 폭넓은 교유를 했다.

박세채는 회니시비가 일어났을 때는 윤증으로 대표되는 소론과 송시열로 대표되는 노론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윤증에게 수차에 걸쳐 부모와 스승의 경중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제자로서의 도리를 저버리지 말 것을 설득했다. 송시열에게도 강도의 일에 대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사생의 도리를 생각해 윤증을 용서하고 비문을 수정해 줄 것을 청했다.[71]

송시열은 박세채의 요청을 수락했다. 당시 윤증, 박세채와 함께 출사할 것을 명받은 상황이었다. 박세채는 3인이 함께 출사해 국사를 담당해야 세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윤증을 설득하기 위해 과천으로 향했다. 그런데 윤증이 출사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내용은 '송시열이 남인을 과도하게 배척해 서인과 남인 사이에 생긴 원한을 풀어 줄 수 있는가'와 '외척의 정치적인 개입을 막을 수 있는가', '자기 편은 등용하고 반대파는 배척하는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가'[72]이었다. 윤증은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출사하겠다고 했다. 박세채는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연히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 후에도 중재를 위한 박세채의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특별한 효과는 없었다.

이들은 학문적으로도 많은 교류를 했다. 초기에 윤증은 이이의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이기심성론의 여러 곳에서 理氣之妙, 理通氣局, 氣發理乘一途 등 이이의 학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

70) 고영진, 「윤증과 박세채의 학문적 교유」, 『역사학연구』 제31집, 2007, 6쪽.
71) 고영진, 위의 글, 11쪽.
72) 이성무, 위의 책, 61쪽.

그러나 송시열과 결별하고 난 후로 사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務實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고 實心으로 實功에 힘쓰면 實學을 우선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반계수록』의 跋文을 쓰면서 높이 평가하고 世務에 뜻있는 자는 이 책을 통해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그 결과 그의 문하에서 정제두나 양득중 같은 양명학자들이 출현한 것이다.

주자학 외의 학문들에 개방적인 윤증과 달리 박세채는 양명학에 대해 엄격하였다. 박세채의 문인인 정제두가 양명학을 연구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 연구를 중지하고 주자학으로 회귀할 것을 요청했다.[73]

이렇게 동시대의 다른 학자들보다 학문에 대해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윤증은 윤선거 사후 아버지의 글들을 모아 정리하고 편차했다. 유고는 43년이 흐른 후인 1712년 尼山의 魯岡書院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문집의 간행이 늦어진 것은 윤증이 스승인 송시열과의 불화 때문에 아버지의 문집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1713년에 좌의정 李頤命이 經筵에서 아뢰어 유계의 손자이자 윤증의 문인인 兪相基가『가례원류』를 간행하고자 했다.[74]『가례원류』는 원래 윤선거와 유계가 공동으로 편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편찬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계는 조정의 명을 받고 무안군수로 나가게 되었다. 책을 집필할 시간이 부족해지자 유계는 그 초본을 문인인 윤증에게 부탁해 修飾하고 潤色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유계는 죽음에 임박해 윤증에게 편지를 보내 모두 완성하도록 면려했다.[75] 유계가 죽고 초본은 그대로 윤증의 집에서 보관했다.

유상기는 윤증을 찾아가 원고를 넘겨 달라 요청했다. 유상기는『가례원류』를 유계가 단독집필한 것이라 여겼고 그 증거로 윤선거가 지은 유계의 행장을 들었다.

'공(公)은 예서에 종류가 많아서 領會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 하여 朱文公의 《家

73) 고영진, 위의 글, 13~14쪽.
74)『숙종실록』권 53, 숙종 39년 5월 20일, 1번째 기사.
75)『숙종실록』권 56, 숙종 41년 11월 5일, 2번째 기사.

禮》를 가지고 綱領을 세우고 條目을 나눈 다음 옛 先賢의 예설과 우리나라 여러 儒賢들의 문자를 아울러 취하여 분류해서 逐條한 아래에 붙이고, 이름하기를 《가례원류》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실지를 그대로 기록한 말이다.'[76]

그에 반해 윤증은 송시열이 쓴 제문의 "또 시남과 함께 『가례원류』를 저술하였으며"[77]를 증거로 들며 공동집필을 주장했다. 윤증과 兪棨의 자손들 사이에 『家禮原流』의 간행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가례원류』 간행을 보지 못하고 윤증은 사망했다. 1714년이었다. 이듬해가 되자 분쟁은 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더욱 치열해졌다.

실록에 『가례원류』 소유권에 대한 분쟁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78] 윤증이 원고를 돌려주기 거절하자 유상기는 초본만을 간행 출판하고 서문과 발문을 權尙夏와 鄭澔에게 청했다. 권상하는 서문 뒤의 작은 발문에서 윤증이 스승인 송시열을 배반한 일을 대단하게 말했고 정호도 발문을 지으면서 극도로 배척했다. 책이 완성되자 유상기는 숙종에게 보였다. 숙종은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갈음했다.

"윤 판부사는 士林의 重望을 받아왔고, 내가 평일에 尊信함이 어떠하였던가? 그런데 부제학 정호가 감히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고 침범하여 배척하기를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으니, 진실로 이미 해괴하게 여길 만하였다. 그런데 그 지은 『가례원류』 발문 가운데에, '이 책을 문인인 윤증에게 부탁하여 參互하여 校勘해 주기를 요구하였다.'고 序頭에 말하고, '불행하게도 그 적임이 아닌 사람에게 부탁하여, 도리어 사람들의 聽聞 속여 스스로 우리 집 책이라고 하면서 전혀 實狀을 숨기고 있으니, 이는 매우 無謂한 일이다.'라는 등의 말로 끝을 맺으면서, 낭자하게 마구 꾸짖었으니, 이것이 진실로 무슨 마음인가. 더구나 그 발문을 지은 것이 儒賢이 이미 죽은 뒤에 있는 일이니, 더욱 놀라 탄식할 만한 일이다. 정호를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 것이며, 이 발문을 쓰지 말도록 하라."[79]

---

76) 『숙종실록』 권 56, 숙종 41년 11월 26일, 1번째 기사.
77) 『宋子大全』 第179卷, 「尹吉甫 墓碣銘」
78) 69번 주와 동일함.
79) 『숙종실록』 권 56, 숙종 41년 11월 5일, 2번째 기사.

숙종의 조치에 유현들의 상소가 빗발쳤다. 각자 윤증의 입장에서, 유상기의 입장에서 열심히 변호했다. 숙종은 "『가례원류』는 私家의 글이므로 국가에서 간여하여 알아야 할 바가 아닌데, 이 때문에 서로 다투어 어지러움이 점점 심하여 가니, 이 뒤로는 이 일에 관계되는 儒疏는 일체 받아들이지 말라."[80]는 명을 내렸다.

숙종의 명으로 사태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몇 일 후에 조상건의 소가 올라왔다. 이것은 송시열을 옹호하는 것으로 권상하를 변호하는 글에서 윤증의 背師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던 것이다. 이미 父子師生간에 누가 중하고 누가 경한가는 교지를 내려 분명히 밝혀 놓은 마당이었다. 격노한 숙종은 조상건을 삭탈관작했다. 뿐만 아니라 유상기 역시 40여 년간의 은혜를 잊고 스승인 윤증을 배반했다 하여 나주로 유배시켰다.[81]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고 2월이 끝날 시점이었다. 판중추부사 李畬가 箚子를 올렸다. 내용은 윤증이 송시열과 사제의 의리를 끊은 일에 대한 시말이었다. 모든 이의 예상과 달리 숙종은 "처분이 한편에 치우칠까 염려하여 조용히 개진하였는데, 의리가 명백하여 내가 매우 감탄하니, 유의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82] 연이은 숙종의 처분으로 조용히 지내던 노론은 고무되었다. 이전과 분위기가 달리 돌아가자 숙종은 회니시비의 빌미가 된 윤선거의 묘갈명과 신유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명했다.[83]

묘갈명과 유서를 살펴본 숙종은 이전에 이여가 올린 차자의 내용이 옳다고 답했다. 즉 송시열이 쓴 윤선거의 묘갈에는 그를 욕보이는 바가 없으나 윤증이 송시열에게 쓴 유서에는 스승을 비방하는 글이 있으므로 윤증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이다. 숙종이 이전까지 보이던 태도와는 정반대였다. 이제는 시국이 바뀌어 물러났던 노론이 등장하고 역으로 소론이 물러나기 시작했다. 숙종은 이 일을 자신의 王權을 강화하고 臣權을 평준화하는데 적용했다. 시의에 따라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한 것

80)『숙종실록』권 57, 숙종 42년 1월 29일, 5번째 기사.
81) 이성무,『조선시대 당쟁사』2, 동방미디어, 2000, 116쪽.
82)『숙종실록』권 57, 숙종 42년 2월 28일, 1번째 기사.
83)『숙종실록』권 57, 숙종 42년 7월 2일, 1번째 기사.

이다.

그러던 중 1716년에 경기·충청·전라도 유생 申球 등의 상소가 올라왔다. 내용은 송시열을 옹호하고 윤선거를 배척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소는 『魯西遺稿』에 실린 글이 발단이 되었다. 친구이자 사돈인 권시에게 자신의 뜻을 토로하고자 보낸 편지에 '作今日之杜擧'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송시열 등 집권 노론들은 이것을 빌미로 소론을 몰아내려 했다. 그들은 윤선거가 "은연중 효종이 강도에 處身했던 것을 저의 偸生(죽어야 옳을 때 죽지 않고 욕되게 살기를 꾀하는 것)에 비기고, 또 감히 효종에게도 허물이 있으므로 저에게 미안함이 있다고 하면서, 적 鑵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여 후일 사람들의 입을 막을 계획을 하였다."[84]고 여겼다. 그들은 맹렬히 공격하며 몰아붙였다.

申球 등이 올린 연명상소를 시작으로 윤선거 문집의 판본을 헐어버릴 것을 청한 金昌集의 상소가 올라왔다.[85] 숙종은 사태를 지켜보다 '丙申處分'이라 불리는 『魯西遺稿』 毁板, 魯岡書院의 賜額을 철거라는 명을 내렸다. 또 『가례원류』 문제로 처벌했던 노론의 정호, 권상하, 민진원 등을 기용하며 동시에 송시열을 공척했던 인사들을 축출, 처벌했다. 게다가 이듬해에는 윤선거에게 先正의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니 윤증에게도 선정의 사용을 금하였다.[86]

그러나 당시 少論의 영수이자 忠淸 山林으로서 尹氏日家의 명성이 높았던 만큼 문집의 훼판에 대한 士林의 반발도 강했다. 상소는 계속되었다. 대사간 이세면이 훼판의 명을 따를 수 없다고 소를 올렸다가 체직되었고[87] 사직 이선부가 김창집을 배척하는 소를 올렸다 파직되었다.[88] 사태는 노론이 바라는 대로 흘러갔다. 속히 명을 거행하라는 숙종의 비답만 반복해서 내려왔다.

병신처분으로 인해 소론은 입지와 명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고인이 된 유현에게 선정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학파의 위상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

84) 『宋子大全』附錄 卷12, 「年譜」 11.
85) 『숙종실록』 권 58, 숙종 42년, 8월 24일, 3번째 기사
86) 이희환, 위의 책, 180쪽.
87) 『숙종실록』 권 58, 숙종 42년, 9월 10일, 3번째 기사
88) 『숙종실록』 권 58, 숙종 42년, 9월 25일, 1번째 기사

고 정통마저 흔드는 것이었다. 서인이 노소로 나뉘고 나서 소론에게 이보다 더 큰 타격은 없었다. 병신처분은 노론과 소론의 세력균형에 종지부를 찍고 노론 전제정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정권의 안정을 꾀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숙종의 妙手이기도 했다.

병신처분 후에 숙종은 노론을 노골적으로 편애했다. 윤증에게 유현의 칭호를 금한지 6개월만인 정유년 7월에 노론대신 이이명과의 밀담을 나누었다. 독대 후 숙종은 느닷없이 대신들을 소집해 세자의 代理聽政을 명했다. 그런데 이 때 소집된 자들은 전부 노론세력이었으며 소론은 한 명도 없었다. 소론세력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89] 숙종은 세자를 지지하는 소론세력과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세력의 대립을 십분 활용하여 국정을 운영했던 것이다.

89) 이희환, 위의 책, 181~182쪽.

Ⅳ. 結論

17세기는 조선을 중기, 후기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사회는 거듭된 양난으로 인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안으로는 무너진 신분제도와 조세제도를 재정비했고 밖으로는 북벌을 주장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집단을 山林이라고 한다. 산림은 학덕이 높지만 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초야에 은거하며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다. 대표적인 존재가 광해군대에 등장했던 정인홍이다. 그는 북인의 영수로서 戰後 조선을 재정비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그 이후에 등장한 대표적인 산림으로는 송시열, 송준길, 유계, 권시, 윤선거 등이 있다. 이들은 호서지역을 거점으로 학문을 익혀 영향력을 발휘했다. 논고의 주요 인물인 윤선거는 팔송 윤황의 아들이며 우계 성혼의 외손으로 '江都의 일'을 당해 과거에 응하지 않고 고향에 은거하며 후학을 양성하던 대표적인 산림이다.

서인의 모집단인 호서산림의 분립문제는 남인에 대한 수용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그 쟁점에 서있는 것이 바로 윤선거이다. 그는 연이어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이론적 학문인 성리학이 매너리즘에 빠지자 '실천'을 중시하는 성혼의 가학을 익혀 務實을 강조했다. 實心을 확립해 實德을 함양하여 實功을 이루어야 유학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나아가 修己治人, 內聖外王의 진실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왕가와 사대부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강조되었던 禮學에 있어서도 실천을 강조했다. 합리성과 실천성을 동시에 가진 윤선거의 예학은 이후 少論의 영수였던 아들 윤증에게 전해져 기호예학 중 특히 소론계열 예학의 연원에 점해진다. 이처럼 그는 동시대의 다른 학자들이 理氣心性論에 몰두하고 있을 때 실천을 강조한 학문을 주장하며 허명을 숭상하는 세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다른 학문을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융통성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주자학이 정치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이 되었던 당시에 그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하던 윤휴를 옹호했고 그 일로 인해 사우인 송시열과의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己亥禮訟을 거치면서 윤휴의 포용문제를 두고 송시열과 윤선거의 대립이 이어졌다. 윤선거는 윤휴를 지나치게 배척하는 송시열을 걱정했고 윤휴를 두둔했다. 세 사람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윤선거가 사망했다.

몇 년 후 甲寅禮訟이 발발했고 기해예송 때 실세했던 남인이 다시 집권했다. 이 당시에 서인계 비주류인물들이 남인과 손을 잡고 정계를 이끌었다. 이것을 두고 남인은 청남과 탁남으로 분열했다. 숙종 6년에 일어난 庚申換局으로 남인은 다시 실각했고 서인이 집권했다. 6년 동안 빼앗겼던 정권을 다시 탈환했지만 송시열과 같은 집권 서인 세력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남아 있는 남인들을 축출하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김익훈 사건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던 서인 소장파들은 송시열의 소극적인 반응에 집권 서인들과 다른 노선을 선택하게 되었다. 소장파의 대표인물인 윤증은 윤선거의 아들이자 송시열의 제자이다. 그는 윤선거와 송시열간의 반목을 빌미로 송시열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송시열이 지나치게 윤휴와 남인들을 몰아붙여 당쟁만 격화시키고 그가 평생 동안 주장한 대의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한 辛酉醫書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립되어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흔히들 노소분립은 회니시비에 의해 발생했다고 알고 있으나 윤증과 송시열의 반목 이전에 선대 때부터 반목의 씨앗이 있었다. 그 선대인 윤선거와 송시열 사이의 학문적인 차이로 인해 반목이 발생했던 것이다. 윤선거는 성혼의 실천성리학을 받아들여 다른 학문에 배타적인 송시열에 비해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교유한 사우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윤선거는 예송 이후 남인이 된 권시와 사돈관계였으며 송시열에 의해 사문난적이라 비난받은 윤휴와도

절친했다. 윤선거의 이러한 중도적인 태도로 인해 윤선거와 송시열사이에 갈등의 씨앗이 생겼고 윤증 대에 와서 그 싹을 틔웠다. 이 싹은 학문과 정치적 측면의 대립에서 급속도로 성장하여 끝내는 노소가 다른 길을 걷게 했다.

윤증 역시 주자학 외의 학문에도 융통성을 발휘해 양명학을 집대성한 정제두, 양득중과도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소론의 중심인물이었던 박세채와도 두터운 관계를 유지했다.

기존의 평가에서는 노소분립이 윤증과 송시열의 반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 이들 부자는 정치, 사상이 주자학으로 경직되어 있던 시기에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서인이 노,소론으로 분립하게 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 參考文獻

1. 사료

국역『魯西遺稿』, 忠南大學校 儒學硏究所, 이화, 2009

국역『宋子大全』, 한국고전번역원

국역『霞谷集』, 한국고전번역원

국역『明齋遺稿』, 한국고전번역원

『孝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顯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顯宗改修實錄』, 국사편찬위원회

『肅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肅宗實錄補闕正誤』, 국사편찬위원회

『英祖實錄』, 국사편찬위원회

2. 단행본

이은순,『朝鮮後期黨爭史硏究』. 일조각, 1988

이희환,『朝鮮後期黨爭硏究』, 국학자료원, 1995

우인수,『朝鮮後期 山林勢力硏究』, 일조각, 1999

이성무,『조선시대 당쟁사』2, 동방미디어, 2000

이태진 편,『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2003

이종범,『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한국유학사상대계Ⅵ-정치사상편, 한국국학진흥원, 2007

한국유학사상대계Ⅵ-철학사상편, 한국국학진흥원, 2007

이종범,『사림열전』2, 아침이슬, 2008

이경구,『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 푸른역사, 2009

3. 논문

고영진, 「17세기 후반 근기남인학자의 사상-윤휴·허목·허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3집, 1994

_____, 「송시열의 사회개혁사상」, 『17세기 한국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6

_____, 「윤증과 박세채의 학문적 교유」, 『歷史學硏究』 제31집, 2007

김교빈, 「明齋 尹拯과 霞谷 鄭齊斗의 交遊」, 『시대와 철학』 제21권 1호, 2010

김세봉, 「朝鮮後期 忠淸山林의 動向-17世紀 山人勢力을 중심으로」, 『湖西文化硏究』 第13輯, 1994

_____, 「17세기 호서산림세력연구: 산인세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_____, 「17세기 호서 지식인의 사회사상」, 『17세기 한국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6

김충렬, 「우율사칠논변 평의」, 『성우계사상연구논총』, 우계문화재단, 1991

김향숙, 「尹宣擧 父子 文集의 刊行과 毁板에 대한 고찰」, 『書誌學報』 第35號, 2010

도민재, 「魯西 尹宣擧의 禮學思想」, 『儒學硏究』 第18輯, 2008

성범중, 「魯西 尹宣擧의 생애와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硏究』 11, 2007

신병주, 「17세기 후반 소론학자의 사상-윤증·최석정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3집, 1994

_____, 「17세기 중·후반 近畿南人 학자의 학풍-허목, 윤휴, 유형원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19輯, 1997

_____, 「남명학파와 화담학파의 학풍 계승에 관한 연구」, 『역사화 현실』 53집, 2004

오수창, 「17세기 조선의 정치세력과 산림」, 『17세기 한국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6

오항녕, 「17세기 전반 서인산림의 사상-김장생·김상헌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 1992

우인수, 「17세기 山林의 進出과 機能」, 『歷史敎育論集』 第5輯, 1983

유명종, 「明齋 尹拯의 儒學史的 位相으로서의 實學」, 『儒學硏究』 第5輯, 1997

이상선, 「明齋와 德村의 交遊考」, 『儒學硏究』 第17輯, 2008

이은순, 「朝鮮後期 黨爭史의 性格과 意義」, 『정신문화연구』 여름호, 1986

_____, 「明齋 尹拯의 生涯와 思想的 淵源」, 『儒學硏究』 第5輯, 1997

_____, 「명재 윤증의 생애와 사회개혁사상」, 『17세기 한국 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6

이희환, 「현종대의 기해 禮訟」, 『歷史學硏究』 제29집, 2007

_____, 「조선 후기 당쟁의 원인」, 『歷史學硏究』 제38집, 2010

정옥자, 「17세기 思想界의 再編과 禮論」, 『韓國文化』 10輯, , 1989

최영성, 「魯西 尹宣擧의 삶과 학문-'悔過自新'과 '喚醒實心'을 중심으로」, 『儒學硏究』 第18輯, 2008

황의동, 「牛溪學의 傳承과 그 學風」, 『범한철학』 28, 2003

_____, 「윤선거의 학풍과 사상」, 『동서철학연구』 제36호, 2005

_____, 「노서 윤선거의 무실사상」, 『儒學硏究』 第18輯, 2008